

전체 주제:

하나님의 뜻

(금요일 — 오전 1부 집회)

메시지 1

우주 안에서 하나님의 뜻의 비밀은
궁극적으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통해
만물이 그리스도 안에서 머리이신 그리스도 아래 통일되도록 하는 것임

성경: 엡 1:5, 9-11, 3:11, 5:17, 골 1:9, 계 4:11, 21:1-2, 9-11

- I. 우리는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이해해야 한다 — 엡 5:17, 골 1:9.
- II.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며 하나님께서 성취하시고자 하는 것이다 — 엡 1:5, 9, 11.
- A. 하나님은 영원한 뜻을 갖고 계시는데, 이 뜻이 그분의 영원한 목적의 근원이다 — 엡 1:11, 3:11.
 - B. 하나님은 시작이나 끝이 없이 영원하시기 때문에, 그분의 뜻 역시 영원하다. 하나님의 뜻은 우주의 기원의 심장부에 있다 — 계 4:11.
 - C. 하나님은 그분의 목적을 성취하시고 이루시기 위해, 그분의 뜻에 따라 만물을 창조하셨다 — 엡 3:11.
 - D. 하나님의 뜻은 그리스도 안에 집중되어 있으며, 그리스도께서 만물 가운데 첫째 위치를 가지시도록 하는 것이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영원한 뜻 안에서 모든 것이시다 — 골 1:15-18, 3:4, 10-11.
 - E. 하나님은 교회와 함께하시는 그리스도를 갖기 원하신다. 하나님의 뜻은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얻으시는 것이다 — 엡 5:32, 1:9, 22-23, 2:21-22, 4:16.
 - F.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그 영으로서, 새 예루살렘을 갖고자 하시는 그분의 영원한 뜻을 성취하시기 위해 지금 우리 안에서 일하고 계신다. 새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한 어린양의 아내로서 새 하늘과 새 땅에서 하나님을 영원토록 표현할 것이다 — 빌 2:13, 엡 3:14-21, 계 21:1-2, 9-11.
- III. 하나님은 그분의 뜻의 선한 기쁨을 따라 우리가 아들의 자격을 얻도록 우리를 미리 정하셨다 — 엡 1:5.
- A. 하나님은 하나의 뜻을 갖고 계시며, 그 뜻 안에 하나님의 선한 기쁨이 있다. 하나님의 선한 기쁨은 그분의 뜻에서 나오며 그분의 뜻 안에 체현되어 있다. 따라서 하나님의 뜻이 먼저이다 — 엡 1:5, 9, 11.
 - B. 하나님의 선한 기쁨은 하나님을 행복하시게 만드는 것, 곧 그분의 마음이 갈망하시는 것이다. 살아 계시고 사랑이 많으시며 목적을 가지신 하나님은 분명 마음의 갈망을 갖고 계신다 — 엡 1:5.
 - C. 하나님은 그분의 기쁨을 따라, 곧 그분의 마음의 갈망을 따라 우리가 그분의 아들이 되도록 미리 정하셨다 — 엡 1:5.
 - 1. 창세전에 하나님은 우리가 거룩하게 되도록 우리를 선택하셨다. 거룩하게 되는 것, 즉 하나

님께서 그분 자신을 우리 안에 분배하시고 그분의 본성을 우리와 연합시키심으로써 우리가 거룩하게 되는 것은 과정이며 절차이다 — 엡 1:4.

2.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것은 목적 곧 목표이며,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과 연결되어 하나님의 만아들의 형상과 같은 형상이 되는 문제이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온 존재를 아들로 만드시기 위한 것이다 — 엡 1:5, 롬 8:29, 골 1:15.

IV. 우리는 ‘모든 일을 자신의 뜻의 의결대로 일하시는 분의 목적에 따라’, ‘미리 정해졌다’ — 엡 1:11.

- A.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의도이며, 하나님의 의결은 그분의 뜻이나 의도를 성취하실 방법을 심사숙고하시어 결정하신 결과이다.
- B. 창세전에 삼일성계서 그분의 뜻에 따라 회의를 여셔서 어떤 의결 곧 어떤 결정을 내리셨는데, 이 결정은 그분의 확고한 뜻이다 — 뵤전 1:20, 계 13:8, 엡 1:11.

V. 하나님의 뜻은 비밀로서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었기 때문에 에베소서 1장 9절은 ‘그분의 뜻의 비밀’이라고 말한다.

- A. 영원 안에서 하나님은 뜻을 갖고 계셨지만, 이 뜻은 그분 안에 감추어져 있었다. 따라서 그것은 비밀이었다 — 엡 1:9, 3:3-5, 9.
- B. 하나님은 그분의 마음의 기쁨으로 그리고 그분의 지혜와 현명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계시해 주신 것을 통하여, 곧 그리스도께서 육체 되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것을 통하여, 감추어져 있던 이 비밀을 우리에게 알려 주셨다 — 엡 1:9, 요 1:14, 롬 1:3-4, 4:25, 8:3, 34.

VI. 궁극적으로 우주 안에서 하나님의 뜻은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통해 만물을 그리스도 안에서 머리이신 그리스도 아래 통일하는 것이다 — 엡 1:10, 22-23, 계 21:1-2.

- A. 하나님의 영원한 의도는 때가 찰 때의 경륜 안에서 만물을 그리스도 안에서 머리이신 그분 아래 통일하는 것이다. 하나님은 이 그리스도를 우주적인 머리로 세우셨다 — 엡 1:10, 22.
- B. 모든 시대에 걸친 하나님의 모든 시대적인 안배를 통하여, 새 하늘과 새 땅에서는 만물이 그리스도 안에서 머리이신 그리스도 아래 통일될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영원한 행정과 경륜이다 — 계 21:1-2.
- C. 사탄의 목표는 하나님의 창조물을 부패시키고 혼란을 일으키는 것이다 — 롬 8:19-23.
 1. 온 우주는 사탄이 죽음의 요인인 그 자신을 하나님의 창조물 안으로 주입함으로써 붕괴의 무더기가 되었다 — 히 2:14, 롬 8:20-21.
 2. 하나님은 만물을 그리스도 안에서 머리이신 그리스도 아래 통일하심으로써, 그분의 창조물을 속박에서 해방하고 자유롭게 하시기 위해 일하고 계신다 — 엡 1:22, 10.
 3. 우리 모두는 붕괴의 무더기에서 구출되고 그리스도 안에서 머리이신 그리스도 아래 통일되어야 한다 — 골 1:12-13.
 4. 하나님의 구원은 우리를 타락하고 죄악된 상태에서뿐 아니라 붕괴의 무더기에서 구원하는 것이다 — 골 1:12-13, 엡 2:1-8, 21-22.
- D.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통해 만물을 그리스도 안에서 머리이신 그리스도 아래 통일하심으로써, 만물을 그리스도 아래 복종시키실 것이다 — 고전 15:20-28.
 1. 하나님은 그분께서 선택하신 사람들을 그리스도를 머리로 삼는 그리스도의 몸이 되도록 그들을 머리이신 그리스도 아래 통일하고 계신다 — 엡 1:4, 22-23.
 - a. 그리스도의 머리의 권위는 교회에게 전달되고 있다. 이것은 어떤 의미에서 우리가 만물

- 을 다스리시는 그리스도의 머리의 권위를 공유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 b. 교회는 오직 그리스도 자신 아래에만 있다. 또한 우리는 만물 위에 계신 분의 몸이기 때문에 다른 모든 것 위에 있다.
 - c. 만물을 그리스도 안에서 머리이신 그리스도 아래 통일하는 첫째 단계는 하나님께서 그분의 선민인 그분의 아들들을 우주적인 붕괴에서 이끌어 내시어 그들을 그리스도의 머리의 권위 아래 두시는 것이다 — 엡 1:22, 4:15, 5:23, 골 1:18, 2:10, 19.
2. 교회가 앞장서서 그리스도 안에서 머리이신 그리스도 아래 통일될 때, 하나님은 다른 모든 것을 머리이신 그리스도 아래 통일하실 길을 얻으신다 — 엡 1:22-23, 10.
 - a. 교회는 하나님께서 그분의 문제들을 해결하시고 그분의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 사용하시는 그릇인데, 하나님의 목적은 바로 하나님께서 그분 자신을 사람과 연합하심으로 사람을 통해 그분 자신을 나타내시는 것이다 — 엡 3:9-11.
 - b. 결국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몸은 만물을 다스리는 우주적인 머리가 될 것이다 — 엡 1:22-23.
 3. 교회생활은 머리이신 그리스도 아래 통일되는 생활이다 — 엡 4:15, 고전 11:3.
 - a. 합당한 교회생활 안에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머리이신 그리스도 아래 통일되고 있다.
 - b. 그리스도 안에서 머리이신 그리스도 아래 통일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모른다면, 우리는 교회를 알 수 없다.
 - c. 교회생활 안에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머리이신 그리스도 아래 통일되는 데 앞장서고 있다. 이것을 위해 우리는 생명이 자라야 한다 — 엡 4:15.
 - d. 우리는 신성한 분배를 통해 머리이신 그리스도 아래 통일된다 — 딤후 1:4, 3:15, 엡 1:1, 3:2, 9, 16-17.
 - e. 하나님은 하나의 행정을 통하여 그분 자신을 그분께 선택받고 구속받은 사람들 안으로 일해 놓고 계시는데, 이 행정은 달콤한 분배이자 친밀한 청지기 직분이자 편안한 가정 안배이다 — 엡 1:10, 3:2, 딤후 1:4, 3:15.
- E. 교회생활 안에서 머리이신 그리스도 아래 통일되는 것은 생명과 빛에 의해 이루어진다 — 요 1:4, 8:12.
1. 하나님께서 회복하시기 위해 사용하시는 길은 사탄과 대립되시는 그리스도, 죽음과 대립되는 생명, 어둠과 대립되는 빛, 혼란과 대립되는 질서이다.
 2. 붕괴는 죽음이라는 요인에서 비롯되고, 머리이신 그리스도 아래 통일되는 것은 생명이라는 요인에서 비롯된다 — 겔 37:4-10.
 3. 하나님께서 그분의 창조물 가운데 하나(eness)를 회복하시는 길은 그분 자신을 우리 안에 생명으로 분배해 주시는 것이다 — 롬 8:6, 10-11, 19-21.
 4. 붕괴의 무더기에서 실지적으로 구출되기 위해서 우리는 생명이 자랄 필요가 있다. 생명이 자랄수록 우리는 더욱더 머리이신 그리스도 아래 통일되고 우주적인 붕괴로부터 구출될 것이다 — 엡 4:15, 골 2:19.
 5.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생명으로 오실 때, 생명의 빛이 우리 안에서 빛난다 — 요 1:4, 엡 5:8-9.
 - a. 이 생명은 죽음을 삼키고, 이 빛은 어둠을 쫓아낸다 — 요 8:12.
 - b. 우리가 생명 안에 있고 빛 아래 있다면, 혼란에서 구출되어 질서와 조화와 하나 안으로 이끌릴 것이다.
- F. 새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하는 새 하늘과 새 땅에서, 만물은 그리스도 안에서 머리이신 그리스도 아래 통일될 것이다. 이것은 에베소서 1장 10절의 완전한 성취일 것이다 — 계 21:2-3, 23-25, 22:1-2상.

1. 새 예루살렘에서 모든 것은 생명으로 적셔지고 빛 아래 있을 것이다 — 계 22:1, 21:23.
2. 요한계시록 21장에서 우리는 머리, 머리를 둘러싼 몸, 성의 빛 가운데 행하는 모든 민족들을 본다. 온 우주는 투명한 성을 통해 나타난 빛 가운데서 머리아신 그리스도 아래 통일될 것이다 — 계 21:18.

사역의 말씀에서 발체

영원부터 감추어져 왔던 비밀

우리는 이번 메시지에서 하나님의 뜻의 비밀을 볼 것이다. 하나님의 뜻은 영원부터 감추어져 왔던 비밀이다(엡 3:5, 골 1:26). 우주는 비밀이다. 하늘과 땅은 왜 존재하는가? 우주 안에는 왜 수많은 것들이 존재하는가? 사람은 왜 이 땅에 존재하는가? 이 모든 질문들이 비밀이며, 이 때문에 수많은 철학이 생긴 것이다. 하나님의 뜻인 이 비밀은 사도들을 통해 교회에 알려졌다. 뜻은 의도이며, 하나님의 뜻은 곧 하나님의 의도이다. 하나님의 의도는 그분의 마음의 갈망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따라서 우주의 비밀은 하나님의 뜻에 관한 것이고, 하나님의 뜻은 그분의 마음의 갈망과 관계있는 것이다. 우리는 비밀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의 갈망을 알아야 한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뜻과 의도가 교회를 갖는 것이며, 교회가 하나님의 마음의 갈망이라고 말할지도 모른다. 이 말은 옳다. 그러나 우리는 교회가 무엇인지를 질문해 보아야 한다. 기독교 교사들을 포함하여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교회에 대해 분명히 알지 못한다. 교회란 단순히 사람들의 모임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다. 우리 스스로는 교회가 아니다. 우리는 불쌍한 죄인들이다. 우리가 교회가 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께서 그분의 아들 안에서 그분 자신을 우리의 존재 안에 일해 넣어 주시는 것이다. 오늘날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께서 그분의 아들 안에서 그분 자신을 선택받고 구속받은 사람들 안으로 일해 넣으시는 이 핵심적이고 중대한 문제를 보지 못했다. 그들은 하나님의 선택과 구속을 알며, 자신이 선택받고 구속받았다는 것을 깨닫고 있다. 그러나 자신을 선택하시고 구속하신 바로 그 하나님께서 아들의 인격 안에서 그분 자신을 그들 안에 일해 넣기를 원하신다는 것은 모르고 있다. 선택이나 구속은 목적이 아니다. 그들은 목적에 이르는 단계이다. 하나님의 목적은 그분 자신을 우리 안에 일해 넣으시는 것이다.

나는 이러한 말이 많은 사람들에게 생소하게 들릴 것임을 안다. 나는 오랫동안 기독교의 여러 종파에 속해 있었다. 나는 근본주의적인 기독교, 형제회 모임, 속생명파의 실행들, 오순절 운동에 있어 보았다. 그러나 나는 그 종파 안에서, 하나님께서 아들의 인격 안에서 그분 자신을 우리 안에 일해 넣으신다는 것을 들어 보지 못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우주의 비밀이다.

신약은 하나님께서 그분 자신을 우리 안에 일해 넣으신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 준다. 아버지와 아들과 영은 모두 우리 안에 계신다(엡 4:6, 고후 13:5, 요 14:17). 요한일서에 따르면, 우리는 하나님 안에 있고, 하나님은 우리 안에 계신다(4:15). 그뿐만 아니라 우리는 그분 안에 거하고, 그분은 우리 안에 거하신다(요 15:4). 빌립보서 1장 21절에서 사도 바울은 심지어 “나에게 있어서 삶은 그리스도이고”라고 말한다. 또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그는 “이제는 더 이상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십니다.”라고 말한다. 이 모든 말씀들은 하나님께서 아들 안에서 그분 자신을 우리 안에 일해 넣고 계심을 보여 준다.

우주의 비밀은 교회이며, 교회는 하나님께서 그분 자신을 일해 넣고 계시는 한 무리의 사람들이다. 마침내 교회는 하나님으로 충만히 적셔져서 최종적으로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될 것이다. 교회는 하나님으로 적셔질 뿐 아니라 그분과 연합될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우리가 신격이 된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우리가 말하는 뜻은 그러한 것이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으로 적셔지고 하나님과 연합된 이들로써 바로 하나님의 표현이 될 것이다. 새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단체적인 표현이다. 여러 번 지적한 바와 같이 보좌 위에 계신 하나님(계 4:3)도, 새 예루살렘(계 21:11)도 벽옥과 같은 모양을 하고 있다. 이것은 성 전체가 하나님의 모양을 가진 하나님의 표현이라는 것을 뜻한다. 이것이 우주의 비밀이다.

그리스도인들이 이것을 볼 수만 있어도 참으로 큰 해방을 받게 될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단지 구원받고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어느 날 천당에 가리라는 것만 알고 있다. 그러나 천당에 가기 위해 구원을

받는다는 관념은 하나님의 뜻의 비밀에 비해 너무나 차원이 낮다. 하나님의 뜻의 비밀은 하나님으로 적셔지고 하나님과 연합된 사람들로 이루어진 교회를 얻는 것이다.

우주의 비밀은 하나님께서 그분 자신을 우리 안에 일해 넣으시는 것이다. 모든 것이 이 목적을 위해 협력한다(롬 8:28). 만물은 이 목적을 위하고 있다. 만물은 하나님께서 그분 자신을 우리 안에 일해 넣으시는 그 일을 위해 있다. 이것은 그저 기쁜 생활을 하는 것과는 엄청난 차이가 있는 것이다. 여러분이 오늘은 기쁠지라도 내일은 그렇지 않을 수 있다. 집회에서는 기뻐지만 집에 돌아와서 부인이나 남편으로 말미암아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다. 하나님의 뜻의 비밀은 우리가 기뻐하는 사람들이 되는 것이 아니다. 오늘은 때가 아직 차지 않았기 때문에 완전한 기쁨을 맛볼 때가 아니다. 많은 사람들이 분명한 이상과 계시가 없기 때문에 교회생활 가운데서 실제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모른다. 그들은 우리가 다만 여기에서 즐거운 시간을 갖는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뜻의 비밀이 아니다. 이 비밀은 하나님께서 그분 자신을 우리 안에 분배해 주심으로 자신을 위하여 교회를 산출하시려는 것이다. 이것이 영원부터 감추어져 왔던 비밀이다.

하나님의 뜻은 자신을 위해 갈망했던 것을 성취하시려는 그분의 의도임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께서 영원 과거에 목적하시고 영원 미래를 위해 자신을 위해 갈망하셨던 것을 성취하시려는 그분의 의도이다. 하나님의 목적과 갈망은 교회를 얻는 것이다. 이것이 그분의 뜻과 그분의 의도이다.

하나님의 비밀은 계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알려졌음

에베소서 1장 9절은 하나님께서 그분의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셨다고 말한다. 하나님의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려 주신 것은 그분의 지혜와 현명의 한 항목이다. 하나님은 영원 안에서 뜻을 세우셨다. 이 뜻은 그분 안에 감추어져 있었으므로 하나의 비밀이었다. 하나님은 그분의 지혜와 현명으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계시를 통하여, 곧 그리스도께서 육체가 되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것을 통하여, 감추어져 있던 비밀을 우리에게 알려 주셨다. 하나님의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계시해 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이 기뻐하시는 일이었다.

하나님의 선한 기쁨을 따라

하나님의 선한 기쁨은 그분의 마음의 갈망으로서, 바로 교회를 얻으시는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분의 뜻의 비밀을 알려 주시는 것은 이러한 그분의 마음의 갈망에 따른 것이다. 이것은 그분의 선한 기쁨을 따른 것이다.

하나님의 선한 기쁨이 하나님께서 목적하신 것이 됨

그분 자신 안에서

하나님의 선한 기쁨은 하나님께서 그분 자신 안에서 목적하신 것이 되었다. 이것은 하나님 자신이 그분의 영원한 목적의 시작과 기원과 범위이시라는 것을 의미한다. 하나님은 어떤 계획 곧 어떤 갈망을 갖고 계시며, 그분의 계획에 따라 어떤 목적을 세우셨다. 이 우주의 존재는 하나님의 목적에 따른 것이다. 하늘과 땅과 만물과 인류는 모두 하나님의 목적에 따라 존재한다. 결국에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갈망을 이룰 것이다. 우주 안에는 하나님의 갈망이라는 것이 있다. 이 갈망은 하나님께서 목적하신 것이 되었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이 갈망을 막을 수 없다. 이 땅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다 이 목적을 위한 것이다.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로 그분의 아들이 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의 중심이며, 만물은 우리를 위해 움직인다. 하나님은 자신 안에서 이 갈망을 목적하셨다. 하나님은 이것에 대해 어느 누구와도 상의하지 않으셨다.

하나님의 큰 기쁨은 하나님께서 그분의 경륜을 위해 그분 자신 안에서 목적하신 것이 되었다(엡 1:10).

‘경륜’으로 번역된 헬라어는 ‘오이코노미아’인데, 여기에서 영어 단어 ‘이코노미(economy, 경제)’가 나왔다. 하나님은 어떤 경륜을 갖기를 목적하셨다. 우주 안에 있는 모든 왕국들, 곧 천사의 왕국과 귀신의 왕국과 인간의 왕국과 동물의 왕국과 식물의 왕국은 모두 이 경륜을 위해 존재하며, 이 경륜을 향해 움직이고 있다. 예를 들어, 오늘날 세계정세의 중심은 중동이며, 이것은 성경에 따른 것이다. 1948년에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된 후, 특히 1967년에 예루살렘이 이스라엘에 귀속된 후, 중동은 국제 문제의 중심이 되었다. 이것은 전적으로 성경에 따른 것이며, 이 우주가 하나님의 경륜을 향해 움직이고 있음을 보여 주는 것이다. 이러한 경륜은 하나님께서 그분의 갈망에 따라 계획하시고 목적하신 것이다. 모든 왕국들은 이 유일한 경륜 아래 있는데, 이 경륜은 바로 만물을 그리스도 안에서 머리이신 그리스도 아래 통일하는 것이다.(에베소서 라이프 스타디, 77-83쪽)

만물을 머리이신 그리스도 아래 통일함

에베소서 1장 10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한다. “때가 찰 때의 경륜을 위한 것입니다. 이 경륜은 만물, 곧 하늘들에 있는 것들이나 땅에 있는 것들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머리이신 그리스도 아래 통일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만물을 통일하려 하신다는 것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여기서 ‘그리스도’는 직역하면 ‘그 그리스도’로서, 에베소서 1장 1절과 3절에서 언급된 분을 가리킨다. 바로 이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영적인 축복이 있고, 축복에 참여하는 신실한 성도들이 있다. 그분은 특별하신 분이시므로 ‘그 그리스도’라 불리신다.

에베소서 1장 10절에서 ‘경륜’으로 번역된 헬라어는 ‘오이코노미아’로서, 그 의미는 ‘가정의 법’, ‘가정 관리’ 또는 ‘가정 행정’이며, 여기에서 파생된 의미가 ‘행정적 안배’, ‘계획’, ‘경륜’이다. 하나님께서 그분의 갈망을 따라 그분 안에서 계획하시고 목적하신 경륜은 때가 찰 때에 모든 것을 그리스도 안에서 머리이신 그리스도 아래 통일되게 하는 것이다. 이것은 생명의 요인이신 삼일 하나님의 풍성한 생명 공급을 교회의 모든 지체에게 분배하여, 그들을 죽어 있는 상태에서 일으켜 몸에 견고하게 연결시킴으로써 성취된다.

에베소서 1장 10절에 있는 ‘때’라는 표현은 시대들을 가리킨다. 때가 차는 것은 모든 시대에 걸친 하나님의 모든 시대적인 안배가 완성된 후, 새 하늘과 새 땅이 나타나게 되는 때일 것이다. 시대들에는 모두 네 시대가 있는데, 그것은 죄의 시대(아담), 율법 시대(모세), 은혜 시대(그리스도), 왕국 시대(천년왕국)이다.

하나님의 영원한 의도는 우주적인 머리로 세워지신 그리스도 안에서 만물을 머리이신 그리스도 아래 통일하는 것이다. 모든 시대에 걸친 하나님의 모든 시대적인 안배를 통하여, 새 하늘과 새 땅에서는 만물이 그리스도 안에서 머리이신 그리스도 아래 통일될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영원한 행정과 경륜이다. 그러므로 만물이 머리이신 그리스도 아래 통일되는 것은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9절까지 다루어진 모든 항목의 결과이다. 하나님은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려고 선택하셨고, 아들의 자격에 이르도록 미리 정하셨으며,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를 위해 구속을 성취하셨고, 사랑하시는 분 안에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며, 모든 지혜와 현명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넘치게 하셨는데, 그 목적은 만물이 그리스도 안에서 머리이신 그리스도 아래 통일되게 하시려는 것이다.

에베소서 1장 22절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만물 위에 머리가 되게 하시어 교회에게 주셨다고 말한다. 이것은 만물이 머리이신 그리스도 아래 통일되는 것이 교회에 관련된 것임을 더 계시한다.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는 천사들과 사람의 배역으로 말미암아 생긴 죽음과 어둠 가운데 있는 우주적인 붕괴의 무더기에서 구출되어, 머리이신 그리스도의 모든 것에 참여하게 된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은 하늘과 땅에 있는 만물을 머리이신 그리스도 아래 통일하는 과정에 계신다. 그러나 머리이신 그리스도와 부합되는 몸인 교회가 없이는 하나님께서 만물을 그리스도 안에서 머리이신 그리스도 아래 통일하시는 것이 가능하지 않을 것이다. 만물을 통일하는 것은 머리에 의해 성취되지만, 머리를 위한 몸이 없이는 성취될 수 없다. 그리스도께서 만물 위에 머리가 되실 수 있는지의 여부와, 만물이 그리스도의 권위에 복종할 수 있는지의 여부와, 만물이 그리스도 안에서 머리이신 그리스도 아래 통일될 수 있는지의 여부는 전적으로 교회가 산출되고 자라나는지의 여부에 달려 있다(엡 4:14-16, 골 2:19). 교회가 완전히 자랄 때, 하나님은 만물을 그리스도의 권위에 복종시키실 수 있을 것이다. 교회라는 수단에 의해 그리스도는 만물 위에 머리가 되실 수 있다. 결국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몸은 만물을 다스리는 우주적인 머리가 될 것이다. 모든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머

리이신 그리스도 아래 통일될 때 절대적인 평안과 조화가 있을 것이고(사 2:4, 11:6, 55:12, 시 96:12-13), 그 붕괴에서 완전히 구출될 것이다. 이러한 상황은 만물이 복원될 때부터 시작될 것이다(행 3:21).

하나님께서 우주를 창조하셨을 때, 우주의 모든 것이 하나 안에 있었다. 모든 것이 조화 가운데 있었고 혼란이 없었다. 하나님과 우주는 조화 안에 있었다. 이러한 조화가 우주의 위대한 하나이다. 우주와 관련된 만물은 이러한 하나의 요인이신 하나님 한 분을 의지한다. 우주의 중심은 하나님 자신이다. 그러므로 우주의 하나는 하나님 자신이다. 우주의 창조 안에는 하나가 있었고, 이 하나 안에는 혼란이 없었다. 그러나 사탄의 반역과 그 반역에 뒤이은 사람의 타락으로 인하여 본래 창조물 안에 있던 하나는 망쳐졌고 온 우주는 혼란에 빠지게 되었다. 사탄은 모든 창조물 안으로 죽음을 가져옴으로 창조된 우주의 하나를 망쳤다. 그 죽음은 창조자와 창조물의 관계를 끊어 버렸다. 다른 말로 하면, 사탄이 우주 안으로 죽음을 가져왔을 때, 우주는 하나님과 분리되었고 우주의 하나가 상실되었다. 그러므로 우주 안에는 완전한 조화가 없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만물을 그리스도 안에서 한 머리이신 그리스도 아래 통일하시려는 영원한 계획, 즉 그리스도를 만물의 머리가 되게 하시고 만물 위의 머리가 되게 하시려는 영원한 계획이 있으셨다. 하나님께서 그분의 창조물 가운데서 하나를 회복하시는 길은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 자신을 우리 안에 생명으로 나누어 주시는 것이다(롬 8:6, 10-11, 19-21). 생명이신 삼일 하나님은 빛을 가져오시고, 빛은 조화를 가져오며, 만물을 하나 안으로 이끈다. 따라서 믿는 이들은 생명이 자람으로써, 합당한 교회생활 안에서 머리이신 그리스도 아래 통일됨으로써, 그리스도의 빛 아래서 생활함으로써 이렇게 머리이신 그리스도 아래 통일되는 것에 참여한다(요 1:4, 계 21:23-25). 우리가 생명이 자랄수록 우리는 머리이신 그리스도 아래 더 통일될 것이고, 우주적인 붕괴의 무더기에서 더 구출될 것이다(엡 4:15, 골 2:19). 만물을 그리스도 안에서 머리이신 그리스도 아래 통일하는 이러한 과정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고, 이 일은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모든 시대를 통해 옛 창조물에서 새 창조물을 산출해 내는 그분의 일을 마치실 때 완전히 성취되고 나타날 것이다. 이러한 새 창조를 통해 그리스도는 모든 창조물을 머리이신 그리스도 아래 통일하시고 우주적인 하나 안으로 이끄실 것이다. 이것은 새 하늘과 새 땅으로 귀결될 것이다. 새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한 새 하늘과 새 땅에서 만물이 그리스도 안에서 머리이신 그리스도 아래 통일될 것이다. 이것이 에베소서 1장 10 절에서 말한, 만물을 머리이신 그리스도 아래 통일하는 것의 완전한 성취가 될 것이다. 요한계시록 21장에서 우리는 머리를 보고, 머리를 둘러싼 몸을 보며, 그 성의 빛 가운데서 행하는 모든 민족들을 본다. 온 우주는 투명한 성을 통해 나타난 빛 가운데서 머리이신 그리스도 아래 통일될 것이다(계 21:18). (신약의 결론, 영문판, 3341-3344쪽)